

나주시 천연염색 신성장 동력 육성

내년까지 염료 생산 센터 2013년까지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나주시가 천연염색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나주시는 '천환경 천연염색 산업센터' 건립과 쪽 염료단지 조성 등 천연염색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폐교인 다시면 옛 신관초교에 120억원을 투입, 천연염료를 대량생산 할 '염색산업 센터'를 내년말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또 화학색소를 대체하는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사업비 100억원)는 나주 지방산단에 오는 2013년까지 들어선다.

염색센터에 공급할 '쪽' 염료단지와 쪽 공원도 다시면 천연염색문화관 옆 2만여m²의 땅에 올해부터 조성돼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함께 쪽 재배에 따른 농가의 새로운 소득

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나주쪽 전통기술 산업화 사업으로 ▲

천연염색 인력양성 ▲공방시설 구축

▲천연염색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천연염색을 환토산업으로 집중 육성,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담당 과(課)를 신설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천연염색산업

내에서만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역 전통산업인 천연염색이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지역은 예로부터 영산강변을 중심으로 쪽 등을 이용한 천연염색이 발달, 무형문화재(천연염색장) 2명을 배출하는 등 국내 천연염색의 대표적 지역이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저수지 둑 높이기
농경지 침수 예방"

농어촌공 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본부장 김종원)는 10일 본부 회의실에서 농어업인 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재해예방과 현안사항 토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업분야 4대강 사업인 저수지 둑높이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를 설명하고 농어업분야 현안사업 토의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행운)도 같은 날 지사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언론기관을 초청해 농업 분야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지사는 흥수예방과 물부족 해결을 위해 현재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왕동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진행중이다.

김행운 광주지사장은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원료되면 80㏊의 농지가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난다"며 "왕동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역시 내년에 마무리되면 기준보다 2.5배나 많은 227만t의 농업용수를 저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



"많아도 자랐네"

태풍의 영향으로 연일 내리던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틀녘에서 노부부가 논두렁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연이은 공직비리 죄송합니다”

나주시 공무원노조 사과…재발방지책도 촉구

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식적인 감사시스템 등 직원들의 부패척결에 대한 무관심이 부패의 종병에 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직원 E(8급)씨는 "이번 영·유아보육료 횡령사건을 비롯한 연이어 터진 각종 비위행위로 나주시 공직사회가 부패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사회의 부패를 개인의 비리로만 치부해 버린 조직문화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비리를 예방하고 직원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 공무원의 청렴의식 부족 등이 부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기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 주차장용지 · 이주주택 · 협의자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FAX)223-1772 헌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 북순창군 복흥면 대 방리 펜션 텔 2007년 준공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 10평형 17개동 관리동 1.각각 독채형

식 주거장원비, 수리한정비, 수련원, 기도원 적합 여우대지 많음, 거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9억전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 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1095㎡

• 지하1층2층4개층, 객실 : 29개 월리선라이터 있음 율산단신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숲속입지 짐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대출증가계기)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 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봉동 한국아델리 음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층월반주거지역 원룸, 빌라, 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95천만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대 지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신강변 치지율

• 매매가 : 291천원대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층월반주거지역 코너 월룸, 빌라 적합

• 매매가 : 193천만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대지 : 9150㎡, 계획관리지역 배수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고밀도로 이주 좋음

• 매매가 : 3억6천만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자연녹지 지역

• 대지 : 1502㎡, 현유실수 재배(배나무)

• 나노신입단지경계대로점 현재포장도로점 투자기자유망

• 매매가 : 2억3천만

가든 매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22번 국도점

• 대지 : 1646㎡, 전 : 610㎡, 가는길 : 271.5㎡, 단독주택 : 143.55㎡

• 매매가 : 6억3천포함 실투자금 2억7천만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대표전화 ☎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장흥군 말 산업 육성 초석

자연교배 망아지 첫 출산

말(馬)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장흥군에서 자연교배를 통해 30kg의 건강한 망아지가 태어났다.

장흥군은 "이명원(유치면)씨가 기르던 암말이 새로들여 키운 승마용 수말과 자연교배를 통해 지난 5일 첫 망아지를 출산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

이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농업 CEO(최고경영자) 양성교육'의 '말산업 육성과정'에 참여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지난 정남진 물축제에서 승마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장흥군 말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망아지를 출산한 말의 나이는 수월 10살, 암말 9살로 사람 나이로 치면 각각 30세와 27세 정도다.



이씨가 기르는 나머지 암말 2마리도 임신 상태여서 올해 안으로 2마리의 망아지가 더 탄생할 전망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망아지 출산은 선진 한국의 블루오션으로 말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장흥군에서 망아지를 출산한 말의 나이는 수월 10살, 암말 9살로 사람 나이로 치면 각각 30세와 27세 정도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재개

국민권익위 주민 갈등 종재 합의안 도출

국도 22호선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광주일보 7월 3일 10면)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증거로 2년만에 도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11일 화순군청에서 지역주민과 흥이식 군수, 박광철 광주 국도관리

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도 22호선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에 따른 마을을 진출입 교차로로 설계한 결과를 마련해 주민과

도출했다.

▲마을 대표들이 교차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술자를 직접 선정하고 ▲선정된 기술자가 9월

20일까지 설계안을 마련해 주민과

발주청인 광주 국도관리사무소는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기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국도관리사무소는 당초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확장 했으나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

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고가차도로 설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하며 주민들끼리도 갈등을 빚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따라 교차로 설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4년에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가 입체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태풍피해 과수농 둑기
화순군 낙 팔아주기

화순군은 제9호 태풍 '무이파' 영향으로 수확기에 있던 과수의 낙과 괴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업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상품가치가 없는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운동은 지난 10일 태풍 현장을 방문한 흥이식 군수가 수확기 를 앞두고 있는 복숭아 대부분이 태풍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져 판로에 애를 태우고 있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수확기에 있는 복숭이는 낙과될 경우 하루만 지나더라도 썩기 때문에 전에 상품성이 없다. 군청 산하 전 공직자들이 복숭아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이날 현재 300상자(4.5kg)를 팔아주는 성과를 올렸다.